

가정교회를 위한 기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 장 19 절]

NO	성명	기도제목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골로새서 4 장 3 절]

NO	대상자명	관계	구체적 전도방법	영적수준	비고

교회를 위한 기도

1) 교회와 사역/행사를 위하여

- 9/21(월)~24(목), 국제총회
- 10/2(금)~10/4(주일), Grace Freedom: 남녀 프리덤
- 10/1(목) 선혼생 오리엔테이션
- 10/4(주일), GMI 선혼생 16기 파송식

2) 한기홍 목사님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9/22~9/25, 국제 총회, 장소: 독일
- 9/27(주일), 프랑크푸르트 은혜교회 입당 감사 및 임직식 예배
- 9/28(월)~9/30(수), 동유럽 목회자 컨퍼런스
- 10/5(월)~10/7(수), KIMNET 선교 대회

3) 선교사님들의 GMI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GMI 16기 선혼생 미주훈련(7/6~10/4)



가정교회 보고서

은혜한인교회

가정교회 예배안

9.20.26



가정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

변질된 세상 속에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 엡 6: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가 있을찌어다



1. Welcome

오랫동안 변함없이 좋아하거나 사랑해 온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음식, 취미, 사람 등) 지난 한 주 Grace Time 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은혜는 무엇인가요?

2. 말씀요약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다. 주님은 사역보다 먼저 사랑을 확인하셨다. 우리도 처음에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하고 봉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식을 수 있다. 불순종과 교만, 불평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식게 한다. 어떻게 하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1. 주님의 ()를 기억해야 한다

(시 103:2)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어려움이 닥치면 은혜를 잊고 불평했다. 우리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와 어려움 속에서 도와주시고 기도 응답하셨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무엇보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자. 은혜를 기억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새로워진다.

2. 범사에 ()해야 한다

(살전 5: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없는 것 하나 때문에 이미 받은 수많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 그러나 감사하면 일상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 감사는 마음에만 간직하지 않고 기도와 예물, 봉사와 섬김으로 표현해야 한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자. 감사가 깊어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도 깊어진다.

3. 받은 은혜를 ()해야 한다

(막 5:19)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숙에게 고하라 예수님께서서는 거라사 지방에서 고침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행하신 큰 일을 가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도 구원의 은혜와 기도 응답, 어려울 때 도와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야 한다. 간증은 듣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전하는 사람에게는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한다.

4. 날마다 ()해야 한다

(계 2:5)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돌아왔다. 우리도 불순종하거나 교만해지고 불평할 때가 있다. 중요한 것은 잘못을 깨달았을 때 변명하거나 미루지 않고 즉시 회개하는 것이다.

환경은 변해도 주님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 은혜를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날마다 회개하자. 마지막까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변하지 않는 가정이 되자.

3. 함께 나눠봅시다

- 1) 오늘 말씀 「변질된 세상 속에서 변함없는 사랑으로」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 2)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때의 경험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붙들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이번 주에 실천할 구체적인 결단을 나누어 봅시다.

합심기도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넘어질 때마다 다시 주님께 돌아가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